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 발행인의 데스크



## ‘피살’ 김정남 아들 김한솔, 미 CIA가 데려갔다”

한국계 미 작가 수키 김, 반북단체 자유조선 인터뷰해 언론기고

“부친 암살 후 마카오 탈출해 대만-네덜란드행...CIA 요원과 행적 감춰”

홍 창 “그렇게 돈많은 청년 만났던 적 없다”...김한솔과 첫 만남 기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뒤 아들 김한솔 등 남은 가족이 네덜란드로 도피하기까지 과정이 전해졌다.

김한솔의 탈출을 주도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그가 네덜란드에서 난민 지위를 얻길 원했으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데리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 김은 16일(현지시간) 주간지 뉴욕커에 기고한 ‘북한 정권을 뒤집으려는 지하운동’이라는 기고문에서 김한솔의 이 같은 도피 과정 등을 소개했다.

김 작가는 2011년 북한에 잠입해 평양과기대 영어교사로 일하며 겪은 경험을 책을 썼으며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김정남은 앞서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신장작용제 공격에 살해됐고 김한솔은 약 3주 뒤인 3월 8일 유튜브로 무사히 피신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한솔의 영상을 올린 ‘천리마민방위’(현 자유조선)란 반북단체는 네덜란드와 미국, 중국, ‘무명의 정부’ 등 4개국 정부의 도움에 감사사를 표했다.

김 작가가 자유조선 멤버들을 취재해 작성한 뉴욕커 기고문에 따르면 김한솔은 아버지 김정남이 피살된 직후 자유조선 리더인 에이드 리언 홍 창에게 전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말레이시아 수사당국과 국제사회는 암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한솔은 홍 창에게 자신의 집을 경비하던 마카오 경찰병력이 사라졌다고 알리며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마카오를 빠져나가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둘은 2013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만났고 김한솔은 홍 창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만남에 대해 홍 창은 김한솔이 명품 브랜드인 구찌 신발을 신고 있었다며 “그렇게 돈이 많은 청년을 만나본 적이 없다. 김정남이 생전에 많은 돈을 챙겨왔다”라고 말했다.

### ‘화학무기 피살’ 김정남 아들 김한솔 도피 과정



김정남 아들 김한솔



1 2017년 2월13일 김정남 피살 직후, 김한솔은 자유조선 리더 에이드리언 홍 창에게 전화해 어머니·여동생과 마카오를 빠져나가게 도와달라고 요청



2 홍 창은 요청으로 자유조선 멤버 크리스토퍼 안은 대만 타이베이 공항에서 김한솔 가족과 만남. 홍 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곽 스히폴 국제공항으로 가라”고 지시했으나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 탑승시간 늦었다며 막아 탑승 못함



3 라운지에서 CIA 요원 2명이 김한솔과 대화 요청 후 다음 날 암스테르담행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것을 도움



4 암스테르담 스히폴 국제공항에 도착한 김한솔 가족, 공항 내 호텔로 연결된 옆문으로 빠져나옴



5 홍 창, 김한솔과의 통화에서 난민지위 신청을 원한다는 의사 확인. 자유조선 멤버와 변호사를 보냈으나 김한솔은 나타나지 않음

CIA가 김한솔 가족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을 것으로 추측

자료/ 주간지 뉴욕커 '북한 정권을 뒤집으려는 지하운동' 기고문

도움을 요청받은 홍 창은 자유조선 멤버이자 전직 미 해병대원 크리스토퍼 안에게 대만 타이베이공항에서 김한솔 가족을 만나 그들을 쫓는 이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마침 필리핀 마닐라에 있던 크리스토퍼 안은 곧바로 이동해 타이베이공항에서 김한솔 가족을 만났다.

홍 창이 김한솔에게 ‘검은색 티셔츠와 LA다저스 모자를 쓴 남자를 스티브라고 부르면 대답할 것’이라고 점선 방법을 알려줬다고 한다.

크리스토퍼 안과 김한솔, 김한솔의 여동생은 영어로 대화하고, 김한솔과 김한솔

의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한국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김한솔의 키는 178cm 정도로 보였다.

김한솔 여동생은 영어가 유창해 ‘평범한 미국 10대’ 같았다고 크리스토퍼 안은 기억했다.

김한솔 어머니가 김한솔에게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자 김한솔은 크리스토퍼 안을 가리키며 “에이드 리언을 믿기에 그도 믿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크리스토퍼 안은 개별 방이 있는 공항 라운지에 김한솔 가족을 들여보냈다.

김한솔 여동생과 어머니가 한방을 쓰고 크리스토퍼 안과 김한솔은 옆방을 썼다. 김한솔은 크리스토퍼 안에게 조부인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함께 낚시하러 갔던 일을 비롯해 조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후 홍 창으로부터 김한솔 가족을 받아들일 국가로 3개국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왔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엔 “한 국가가 김한솔 가족을 받아들여기로 했으나 표를 끊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곽 스히폴 국제공항으로 가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김한솔 가족이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게이트에서 표를 검사받는 순간 항공사 직

▲ [그래픽] ‘화학무기 피살’ 김정남 아들 김한솔 도피 과정

원이 돌연 “너무 늦게 와 탈수 없다”고 외쳤다.

크리스토퍼 안이 아직 탑승 중인 승객이 있다며 항의했으나 먹히지 않았고 김한솔 가족은 라운지로 돌아왔다.

몇 시간 뒤 라운지에 나타난 것은 CIA 요원 2명이라고 한다. 한 명은 ‘웨스’라는 이름의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백인이었다고 크리스토퍼 안은 밝혔다. 이들은 김한솔과 대화를 요청했다.

CIA 요원들은 다음 날 다시 나타나 ‘훨씬 친절해진 태도’로 암스테르담행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것을 도왔다. 웨스라는 요원은 김한솔 가족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안은 김한솔과 헤어지기 전 홍 창에게 지시에 따라 ‘보험용’으로 함께 셀카를 찍었다.

암스테르담 스히폴 국제공항에 도착한 김한솔 가족은 정식 통로가 아닌 공항 내 호텔로 연결된 옆문으로 빠져나왔다. 김한솔은 홍 창에게 전화해 ‘옆문’으로 나가도록 자신들을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홍 창은 김한솔에게 난민지위 신청을 원하는지 물었고 그러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자유조선 멤버와 변호사를 호텔 로비에 보냈다.

그러나 김한솔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수키 김은 “여러 관계자가 CIA가 김한솔과 그의 가족을 모쳐로 데려갔다고 말해줬다”면서 “(김한솔 가족을 데려간 곳) 네덜란드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기고문에는 지난해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한 홍 창은 설명도 자세히 실렸다.

북한대사관에 있던 누군가로부터 ‘탈북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홍 창 등 자유조선의 일부 핵심 멤버들이 구출 작전 중에 아예 대사관을 장악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이다.

도움을 요청한 이 인사는 북한에 있는 가족이 처형당할까봐 납치되는 것처럼 꾸미길 원했다고 한 소식통이 수키 김에게 전했다.

그러나 습격 사건 당시 스페인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이 탈북 희망자를 겁먹게 만들었다고 홍 창은 전했다. 경찰을 속여 돌려보낸 뒤 계속 대사관 전화가 울리자, 당초 도움을 요청했던 이 인사는 “그들이 알고 있다”고 소리치며 탈북을 포기했다고 한다.

부친이 살해되자 마카오를 탈출한 뒤 대만, 네덜란드로 향한 김한솔,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은 김한솔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들과 함께 사라졌다고 밝혔다.

홍 창은 북한의 비밀 통신의 암호를 풀기 위해 대사관에서 컴퓨터와 하드 드라이브 등 전자장치를 가져왔고, 미국에 돌아온 뒤 자신을 찾아온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이들 장비를 건네줬다.

북한의 컴퓨터에서 찾아내는 정보가 더 강한 대북 제재로 이어지기를 희망했으나, 그는 컴퓨터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17년 피살 당시 김정남의 모습(오른쪽)과 그의 아들 김한솔